

사진 : 이영이 카타리나(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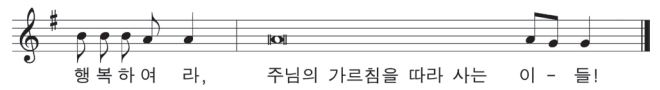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  
(마태 5, 24)

##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집회서 15, 15~20

**화답송** 시편 119(118), 1~2, 4~5, 17~18, 33~34 (◎ 1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1.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2.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3.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4.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제2독서** 코린토 1서 2, 6~10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 5, 17~37

**영성체송** 시편 78(77), 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스마트폰에서 **교구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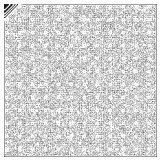
QR코드를 사용하면 가톨릭부산 모바일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http://www.catholicbusan.or.kr>

이 주간의 축일

♣ 12일 : 가우덴시오, 고렐리노, 다미아노, 루단, 마리아, 멜레시오, 모테스토, 안토니오 카울레아, 암모니오, 에울랄리아, 에텔발도, 율리아노



#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오늘 복음은 산상설교 중의 일부이다. 예수님은 6개의 율법조항을 열거하고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한다.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여라.’며 율법주의를 경계했던 예수님이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한다. 왜 율법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올바른 것이다. 율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라고 하신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끊어야 만이 살인이 아니다. 사람대접 받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이미 죽은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욕정만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답게 살면 맹세할 필

요 없다. 사람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살면 된다. 모자람을 숨기기 위해 맹세하는 것이 문제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 내용과 정신을 말씀하신다. 율법에 정신이 없으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지 못한다. 구속하는 족쇄일 뿐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다. 사랑하는데 마음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득이 아니라 실이다. 약이 아니라 독이다.

요즈음 역시 지켜야 할 법이 너무 많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런데 법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힘들게 한다.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간다. 법만으로 편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 20) 율법의 형식을 넘어 사랑의 완전한 실천을 명령하신다. 예

전이 아니라, 요즈음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일미사 참석, 교무금 납부, 매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일까?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법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만이 모두가 아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동네 호숫가를 산책을 하다 두 자매님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성당은 나가지만 그 인간하고 아는 척도 안할 거다.” “그래도 하느님 믿는 사람이잖아.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믿고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 믿으면서 미운 사람 피한다고 행복할 수 없다. 사랑을 실천해야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다.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김성남 야고보 신부  
좌동성당 주임



## 같은 눈물일까 봐.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죠. 누선과 타액선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건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랍니다. 많이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수록 눈물도 많이 흐른다고 하기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자주 눈물이 나는데 나 역시 먹어선 안 될 것을 또 먹었나 해서, 이 눈물이 그 눈물인가 싶어서.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지금 여기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2.13(월)~14(화)  
김성남 신부(좌동성당 주임)  
2.15(수)~18(토)  
이해용 신부(복산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2.14(화) 함께 하는 여성  
출연 : 남천성당 <포도가지> 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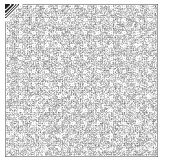
### 다정 다감 다섯시

월~금 17:05~18:00  
진행 : 유기환 아나운서  
2.16(목) 현대인의 중독 상담  
출연 : 홍성민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 무인교회와 알파고 사제



변 미 정 모니카

얼마 전 대학 은사님의 페이스 북에서 본 내용이다. 아일랜드에서 ‘무인도서관(無人圖書館)’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전임 주무장관이 현 주무장관에게 공개편지로 충고와 경고를 보냈는데 “도서관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곳, 이 정책 추진은 당신의 정치경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무인시대가 오면서, 당장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이야기다.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성탄특집으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 해 동안 나눔을 실천한 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해고된다는 소식에 정성 어린

손글씨로 반대의견을 알려, 해고를 철회시킨 초등학생도 있었다.

아일랜드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는 이제 무인(無人)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듯하다. 은행 창구 업무를 대신할 자동화기기에 이어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머지않은 미래엔 무인자동차 등장도 예고되었다.

인도에서 잠시 생활하며 겪은 일 중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며 간단히 기계로 하면 될 일을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시간과 돈도 몇 배나 드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바구니로 돌맹이를 저 나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물어봤다. 그때 인도 친구가 해준 대답은 “저 사람들이 일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대답.

자본과 물질의 시대에서 효율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와 무엇을 위한 효율이냐?’ 라는 질문이 아닐까? 비용측면의 효율보다는 사람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서관일진대, 교회는 어떠한가? 갈수록 신자 수는 줄고 젊은이들은 나오지 않는 교회의 미래에서 당장의 비용절감과 효율은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사람이 없고 무인시스템이 대신하는 교회를 상상해보라. 교회조차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자리에 돈과 효율이 등장한다면 알파고 사제는 무례한 상상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이 되지 않을까? ■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가톨릭부산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atholicbusan  
www.twitter.com/catholicbusan



###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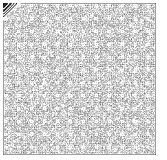
본당마다 냉담 교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교우들이 많습니다. 본당 사목자로서 미사 때마다 냉담 교우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에 오시는 교우님들에게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묵주기도 5단이나 적어도 주모경 1번만이라도 바치기를 당부합니다. 혼자 바치는 기도보다 같은 지향을 두고 여럿이 바치는 기도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본당 소수정예인 ‘기도 부대’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한 번 본당을 떠난 교우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그들이 냉담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미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영성체 때에 안수받으러 나오면, 그들의 머리에 정성스레 손을 얹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이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 주시고, 이 어린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 이심전심이었는지 기쁨에 넘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부모에게 신나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의 품안에 머무르기를 늘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냉담 교우들도 서서히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 강정웅 신부(반송성당 주임) k-joyce@hanmail.net

## 온몸으로 꼭 잡은 생명의 끈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중 암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급 의료기기와 의약품으로 완치 확률은 높아졌으나 평균 2,8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어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암에 걸려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무려 세 종류의 암에 걸린 막달레나(60세) 씨는 2009년 난소암에 걸려 자궁과 난소 적출 수술을 하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또다시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장암이 2016년에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고 6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막달레나 씨는 3번의 수술과 30회의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겨우 목숨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이겨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모두 엄마를 살리기 위

해 결혼 자금으로 들어 놓았던 적금을 해약하고 월급까지 가불하여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 큰아들은 많지도 않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내어놓았고, 작은아들은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점점 뺏겨지는 몸으로 야근까지 하면서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7년 동안 4천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달레나 씨는 작년 12월 정기검사에서 간암 판정을 받아 다시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희생으로 목숨을 유지해 온 막달레나 씨는 이제 아들들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암이

발견되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레나 씨는 다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고통보다는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다시 감당해야 하는 아들들 걱정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씨의 상황이 긴박하여 사회사목국에서는 먼저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중순에 수술을 받고 2월부터 항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아들들의 희생으로 생명의 끈을 잡고 있는 막달레나 씨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주십시오.

■ 사회사목국(051-516-0815)

###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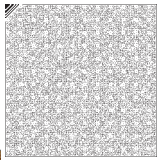
그렇듯한 명분으로 자신의 일을 돕도록 레지오의 활동을 강요합니다. 안면에 거절도 못합니다. 이런 활동도 봉사인지, 또 레지오 활동보고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성모님께 형제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전해 올리며 사제 이기에 '편'이 되지 못하고 '딱 잘라 거절하세요'라는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섬기는 사람"(루카 22, 27)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세상의 눈에는 걸림돌이요 어리석음입니다.(1코린 1, 23 참조) 저는 무엇보다 형제님의 마음 상태를 염려합니다. '아닌 일'로 인해서 형제님 마음이 삭막해지지 않았을지, 사소한 일에서 짜증을 내며 매사에 감정이 곤두서서 스스로의 일상을 미움과 원망과 판단으로 짐먹게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형제님, 이런 상

황에서 제일 마음이 아프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자녀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매만져주고 계실 줄 압니다. 아, 그래서 믿음은 또한 기다림이지요! 물론 강요된 봉사는 레지오 정신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건의하는 것 또한 믿음인의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십리를 가자 할 때 기꺼이 이 십리를 가주는 마음이라면, 알면서도 사랑으로 속아준다면 매우 향기로운 활동보고일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형제님의 산란한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 회장단 · 총무 연수



지난 2월 5일(일) 양산 정하상바로영성관에서 '2017 회장단 · 총무 연수'가 350여 명의 본당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연수는 2017년 사목 지침 해설, 그룹 토의, 교구 및 울산

대리구 평협 정기총회,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세로, 한 해 동안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미사 중에 선교상, 평신도 교리교사 공로상(15년, 10년, 5년), 사랑 ·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 시상자(개인, 단체) 명단 및 주교님 강론 동영상

## 부산가톨릭대학교, 펠리치타 캠프



around) CUP : 입학 전 펠리치타 캠프'가 있었다. 입학 전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능력과 인성 및 봉사정신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인성 특강, 진로 특강 및 선배 멘토와의 만남이 있었으며, 캠프 기간 중에는 범일동 일대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배달 봉사 활동도 있었다. \* '펠리치타(felicita)'는 이탈리아어로 행복이란 뜻

지난 1월 18일(수)~20일(금)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관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 A(all-

## 석포성당,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패 수상



석포성당(주임 : 장훈철 신부, 회장 : 이병열 라우렌시오)은 남구청으로부터 '2016년 어려운 이웃돕기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1월 25일(수) 남구청 5층 강당에서 표창패를 수상했다. 석포성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우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500만 원 상당)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눴다.

## 데레사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데레사여자고등학교(교장 : 김대홍 안드레아)는 최근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또한 2016~17학년도 부산시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인문사회영역) 운영학교로도 선정되었다.



## 부산성모병원, 개원 11주년 감사미사



2월 2일(목) / 의료원장 : 노영찬 신부, 병원장 : 김성원 예로니모

## 새 사제와 함께하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2월 3일(금) 교구청 5층 강당 / 성소국(국장 : 김태형 신부) 주관

성소분과위원 연수(교육 및 미사)

· 2.19(일) 10:00~16:00 / 회비: 1만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 교육관
대상: 본당의 성소분과 위원 및 성소후원회
신청: ~2.14(화) / 문의: 629-8760~2(성소국)

2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2.26(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예비신학교 등록 안내

대상: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1~고2 남학생
(2017학년기준) / 등록방법: 성소국 홈페이지
(http://sungso.catb.kr) 및 교구공문 참조
등록비: 5만원 / 등록마감: 2.28(화)
예신입학식: 3.12(일) 13:30 신학대학
문의: 629-8760~2(성소국)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055)374-8732~3(관리사무실)

본 당

가야성당 2월 성령치유대피정

· 2.14(화) 12:30~17:00 · 가야성당
강사: 김재중 형제,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010-6679-5345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13일은 정재석(요셉) 신부님
의 선종일입니다.(1995.2.13. 선종)

가야성당 성가음악회 <아름다움이여라>

· 2.25(토) 16:00 · 가야성당
출연: 음악밴드 Wit(나무에부는바람), 김지영,
천순녕(남천성당 Solist) / 문의: 010-2614-6996

이기대성당 사무원 구함

근무형태: 월~토 오전근무(주 1일 휴무), 일
07:00~15:00 / 서류: 이력서(사진), 자기소개
서, 교적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격: 운전, PC(한글, 엑셀) 가능
마감: 2.12(일) / 문의: 611-1009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을 후원회 미사

부산: 2.13(일) 11:00 남천성당
문의: 782-0765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2.13(일)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미디어의 함정, 알고도 당한다 / 강사: 노
종면 기자 / 문의: 465-9508(무료강의와 미사)
세월호미사: 매주 월 19:30 수정성당(아세미날 제외)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2.13(일)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주례: 이주홍 신부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빈민사목 후원미사

· 2.13(일) 10:0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의류, 운동화, 수건, 치약, 바디워시, 린스, 가방 등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2.18(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462-1784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성령기도회
· 2.13(월) 19:30 전포성당
· 2.15(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2.13(일) 11:00 (안수/중식제공)
- 수요치유기도회
· 2.15(수) 11:00~16:00 / 점심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치유의밤)
· 2.17(금) 23:00~다음날 04:00
강사: 이영숙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교구 성령묵상회

제425차(일반): 2.17(금) 11:00~19(일) 17:30
제426차(일반): 2.24(금) 11:00~26(일) 17:30
회비: 10만원(교재비 별도 3,000원) / 당일지참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 28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1차(기초봉사회)
· 3.4(토) 15:00~5(일) 17:00
회비: 5만원(교재비 5,5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참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2.16(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이광우 신부(가야성당 부주임)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2.14(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2.25(토) 10:00 옥동성당
문의: 441-7729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2.16(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전국 주요성지 해설(배론)
문의: 515-0030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2.21(화) 14:00 / 지도: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010-8879-2376(회장)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2.17(금) 11:00 · 양정성당
대상: 회장, 지도조장 / 문의: 466-2290

음악교육원 신입생 모집

매주 화요일 주간 및 야간과정(2년과정)
개강: 3.7(화) / 문의: 517-8241,2

오륜대순교자성지 열린 토요 교회사 강좌

개강미사: 3.4(토) 15:00, 미사 후 오리엔테이션
· 3.11~11.11 매주 토 15:00~17:00(60시간)
수강료: 20만원 ※ 선착순 60명에 한함
강사와 내용: 손숙경 교수(한국교회사), 전수홍
신부(슬라이드로 보는 세계교회사), 한윤신 신부
(사건별로 보는 세계교회사) / 문의: 515-0030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배움의 집에 묵어라.”(집회 51, 23)

2017년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정규반 \* 2년과정(4학기) / 정원: 40명

- 주간: 주 3일(화 11:00~17:00, 수, 목 14:00~17:00)
■ 야간: 주 3일(화, 수, 목 19:00~21:00)
■ 자격: 모든 수도자와 세례 받은지 1년이
넘은 평신도, 대학 강의를 듣기에
충분한 고졸 이상의 학력자

문의 051-464-7591(신학원교무실)

심화반 \* 학기별 / 정원: 30명

- 매주 금요일 14:00~17:00
■ 자격: 신학원졸업생 및 수도자

원서교부 및 접수

\* 2,22(수) 까지 (토, 일 제외)
가) 교부: 본원양식다운(입학원서, 이력서)
cafe.daum.net/catholic-sinhak
나) 접수: 방문, 등기우편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법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0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형기 디지털보형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

물 세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삼일누수
전화: 202-3011
이 국 영(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국자동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폐차
상담 010-3599-6420
현 중 삼(요셉)
부산 1단지 관여 제14호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혜(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법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내과
[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외 부산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7명
www.endocrine-clinic.com
상담 및 예약 245-7100

거 제 주 단
주단, 포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

가톨릭여행사
4/17 동유럽 4개국 12일 385만원
4/27 스페인, 포르투갈 13일 385만원
5/9 성모님 발현지 유럽 4개국 415만원
(02)319-2533

###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8층)

용도 : 사무실(14평) / 문의 : 462-1870(행정실)

### 신학대학 주방직원(계약직) 구함

대상 : 여(조리원) / 문의 : 010-7279-2147, 519-0437(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년 <무료교양강좌>

주제 : 증독 - 나를 잃어버리다  
부제 : 증독회복의 영성적 의미  
강사 : 홍성민 신부(한국종교전문기행회 부산지부 이사) · 2.18(토) 10:00~12:00 / 대상 : 모든 신자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 3층 강당  
무료주차 가능, 마을버스 이용시간호대학 입구 하차  
문의 : 510-0952~3, edu.cup.ac.kr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모집

· 3월~12월 매주 화/목 18:00~21:00(10개월 과정)  
·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502호  
대상 : 대학(원)생(휴학생, 수료생 가능), 현장 사회적기업가, 지원인력(유관기관 종사자) 및 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 등 35명 이내 / 교육비 : 대학(원)생 30만원(학기당 15만원), 지원인력 및 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 등 60만원(학기당 30만원)  
신청방법 : www.cup.ac.kr-공지사항-행사/모집(757번)에서 신청서 작성 후 gbabydan@cup.ac.kr 메일 제출(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예정)  
마감 : 2.15(수) / 문의 : 510-0948

###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 제4기 영성심리상담 강좌(1년 과정)

1학기 : 3.6~6.12 매주 월요일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 강좌료 : 15만원(교재 무료 제공)  
강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과목 : 영성과 심리상담, MB에 의한 영성과 기도생활 심리검사, 트라우마의 원인과 치료기법, NLP의 치료기법 / 문의 : 463-7866  
\* 1년과정후 영성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수여  
특전 :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상담학회의 수련과정 인정

### 교육 · 모집 · 기타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2.13(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2.17(금) 10:00 · 사직대건성당  
· 2.21(화) 10:00 · 이기대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2.13(월) 10: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박유식 신부 / 문의 : (055)367-2214

#### 사랑의성모수녀회BPS 가족 미사

· 2.13(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 예수고난회 일일피정

· 2.13(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나의 수도생활 / 강사 : 장명일 신부  
문의 : (062)571-5004, 010-3579-7560

#### 전교가르멜수녀회 청년 토크모임

· 2.21(화) 20:00 · 전교가르멜청원소  
주제 : 마음?! / 문의 : 865-7334, 010-9479-7334

####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2.26(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2.22(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주례)

#### 예수성심전교수녀회의 마음의 영성학교 3기

<마음의 영성>을 배우는 영성 아카데미 1학기 : 마음의 영성, 성경과 기도생활  
개강 : 3.7~5.30 매주 화 14:00~16:20  
문의 : 581-3114(성심영성센터)

#### 성바로수도회(말씀으로 마음치유(독서치료))

· 3월부터 매주 목요일 10주간  
오전반 10:00~12:00 저녁반 19:00~21:30  
· 가톨릭센터 1층 성바로 서원 / 참가비 : 12만원  
대상 : 30대~50대 가톨릭 신자 / 문의 : 521-8898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2.18(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엠티신마리아성심수녀회	2.19(일) 13:30	본원	010-2835-4858

인간존중 생명사랑 **부산가톨릭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총원 및 등록 기간** 2월 7일(화)~17(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메리놀병원 신장이식팀**

국내 최초 **Rh 음성, 혈액형이 다른 신장이식 수술 성공**

문의 : 461-2393(메리놀병원 신장내과)

**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내용 : 마리아의 외조지로서, 예수의 양부로서 의 요셉 성인의 삶

**\*무료영화상영 나자렛의 요셉**

일시: 2/20(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예술전용관C&C)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p> <p><b>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음악그랜드피아노판매</b></p> <p>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성(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b>851-4545, 010-3597-4641</b></p>	<p><b>선비목집</b></p> <p>통영산골 코스요리 개시 굴구이, 생굴회, 연어샐러드 굴전, 굴탕수육, 굴국밥 입안에 바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 목 요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b>553-3929</b> 동래 매미트 정문 옆 주차장</p>	<p><b>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b></p> <p>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b>555-5777</b>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b>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b></p> <p>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b>633-8228, 634-8228</b>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b>임플란트, 틀니, 유지관리 전문치과 라이프치과의원</b></p> <p>치의학 박사, 최재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찬(요한 급구) <b>743-3334</b> 해운대 31번 중점 맞은편</p>
<p><b>바른성모안과</b></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b>242-0075</b> 서구정 옆 바른병원 3층</p>	<p><b>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b> <b>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b></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에네스)</p>	<p><b>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b></p> <p>방문 요양,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감중관(토마스), 김태순(안젤라) <b>752-6516, 010-7597-9264</b></p>	<p><b>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b></p> <p>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햇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의학박사 <b>611-3339</b> 남원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b>눈시원안과</b></p> <p>이현석(분도) 전, 국토방 성모안과 공동원장 <b>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b> <b>010-8108-2110</b> 상공희소 옆 이범병원 3층</p>